



“봤지? 첫 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박주영(오른쪽)이 26일 영국 런던의 에미리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볼턴과의 칼링컵 16강전에서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드디어 터졌다 박주영 데뷔골

칼링컵 볼턴전 결승골…아스널 8강 이끌어

박지성도 선발 풀타임 선제골 도움 맹활약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현직 '캡틴'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박주영(26·아스널)이 결정적인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란히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팀내 주전경쟁에 청신호를 썼다.

박주영은 2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리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볼턴과의 2011-2012 칼링컵 16강전에 선발 출전, 1-1로 맞선 후반 12분 역전 결승골로 영국 무대 데뷔골을 터뜨려 팀의 2-1 승리에 주인공이 됐다.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1호 박지성도 이에 질색어 올더숏타운과의 칼링

컵 16강 입단을 확정한 박주영은 데뷔전인 9월21일 슈루주버리 타운과의 칼링컵 32강전에 선발로 나서 71분간 뛰었지만 그다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그 후 한 달이 넘도록 벤치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8월 말 아스널 입단을 확정한 박주영은 데뷔전인 9월21일 슈루주버리 타운과의 칼링컵 32강전에 선발로 나서 71분간 뛰었지만 그다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그 후 한 달이 넘도록 벤치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동료의 침투 패스를 기술적인 슈팅

벤치만 달구는 시간이 늘어나자 현지 언론에서는 박주영을 '공짜 매물'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지만 박주영은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 출전 기회를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전반부터 연달아 유효슈팅을 때리며 집요하게 기회를 노린 박주영은 1-1로 맞선 후반 12분 영리하게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린 뒤 아르샤빈의 패스를 오른발로 감아 차 골그늘을 흔들었다. 잊혀져 가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르센 웹 거 감독과 홈팬 앞에 확실한 새길 귀중한 첫 골이었다.



으로 연결해 골을 뽑아냈다는 점에서 아스널 특유의 팀플레이와도 어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고 홈팬 앞에서 주전급이나 나선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 역전 결승골을 뽑아낸 점도 데뷔골의 가치를 더했다. /연합뉴스

웹 거 감독도 박주영을 두고 “다른 선수들과의 연결도 지능적이었고 골 결정력은 환상적이었다. 정규리그 경기에도 출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 박주영을 더 기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지성도 중요한 선제골을 득하는 적재적소의 활약을 했다. 박지성 역시 이번 시즌 초반 애슬리 영과 루이스 나니 등 측면 요원들에 밀려 이번 시즌 좀처럼 선발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모처럼 선발로 나선 이날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전반 15분 베르바토프의 선제골을 도왔고 수차례 날카로운 크로스로 동료들에 게 슈팅 기회를 열어줬다.

3부리그 팀이지만 강하게 저항하던 올더숏타운을 상대로 일찌감치 선제골이 나온 덕에 맨유는 여유 있게 남은 경기를 풀어가며 3-0 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영언론 박주영 칭찬 릴레이

## “벵거 감독 금맥을 캤다”

칼링컵 4라운드(16강) 홈 경기에서 풀 타임을 소화하며 역전 결승골 이자 자신의 데뷔골을 터뜨린 박주영에 대해 영국 언론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영국 대중지 더 선 인터넷판은 26일(이하 한국시간) 박주영이 두 팔

을 벌리고 골 세리머니를 펼치는 사진을 크게 배치하고 사진 아래에 “한국의 스타가 아스널을 8강에 옮렸다”는 설명을 달았다.

박주영의 골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한 더 선은 또 “아스널의 감독 아르센 벵거는 러시아의 안드레이

아르샤빈과 한국인 박주영에게 큰 감사를 전해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인터넷판은 “아스널이 주요 공격수 반 페르시에 대한 대체 요원 찾기에 계속 실패했지만 이날 경기에서 박주영을

발견한 벵거 감독은 ‘금맥을 캤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박주영의 활약에 대해 “박주영은 에미리트 스타디움에서 공격라인을 훌륭하게 이끌었다. 전반 두 번이나 볼턴의 보그단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야 하는 슛을 쐈고 마침내

는 결승골을 터트렸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스포츠 채널인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도 “아르샤빈과 박주영의 골이 웹거 감독을 기쁘게 했다”고 평가했다.

박주영을 상대했던 볼턴의 오언 코일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박주영에게 탁월한 결승 골을 내주고 말았다”며 아쉬워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첫째 주에 방콕 인근 로열GEMS 골프장에서 대회를 열 계획이다.

KLPGA 관계자는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안에 개최 여부가 결정돼야 하지만 현지 공항도 홍수로 인해 폐쇄되는 상황이어서 무산될 가능성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일여자골프대항전은 두 나라 정예 팀으로 팀을 구성돼 1999년 첫 대회를 열었지만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 바르셀로나 라리가 선두 탈환

사비 프리킥골…그라나다 원정 1-0 승리

### 15경기 무패 행진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392경기째 출전, FC바르셀로나팀 최다 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1973년부터 1989년까지 뛰었던 미겔 베르나르도 비앙케티의 391경기였다.

FC바르셀로나는 25일(현지시간)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2011-2012 프리메라리가 9라운드 그라나다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전반 33분 사비가 프리킥을 직접 골로 연결해 결승점을 뽑은 FC바르셀로나는 6승3무로 한 경기로 레반테(6승2무)를 제치고 리그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아이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17만원 ⇒ 12만원  
▪ 만도정품네비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5만원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49만원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마감재 65만원 ⇒ 53만원  
▪ 트립형 매입차량은 상담후결정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 하는일

- 투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파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너,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2채널 8기가 35만원 ⇒ 30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부터

아이나비 클레어  
Real HD 블랙박스

▶ 1채널 4기가 19만원 ⇒ 16만원

▶ 2채널 8기가 38만원 ⇒ 33만원

▶ Real HD 1채널 8기가 28만원 ⇒ 22만원

▶ 파워세이퍼 별도 2만원

▶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 바디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악세사리 일체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 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걱정 끝

